

【연구논문】

동물권리와 자연의 언어: 생태비평적 접근
-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리오폴드의 「산처럼 생각하기」,
스나이더의 『야생의 실천』,
이히마에라의 『고래 타는 사람』을 중심으로*-

강 규 한

(국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반인간중심주의가 생태비평의 핵심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오면서 로드릭 내쉬(Roderick Nash) 등이 제창하는 이른바 자연의 권리 담론이 주목을 받아왔다. 동물권리 담론은 자연권리 담론이 특히 동물에게 적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비인간이라는 이유로 동물에 가해지는 차별을 거부하는 동물권리 담론의 특성을 논의하는 한편, 비인간 세계에 적용되는 자연의 권리와 인간사회에 적용되는 인간 권리 사이의 차이,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되는 의미들을, 특히 사냥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자연 속의 '친구'이자 '형제'인 비인간 동물들의 생명을 빼앗아야 하는 딜레마가 어떻게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를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the Sea*)와 엘도 리오폴드(Aldo Leopold)의 「산처럼 생각하기」("Thinking Like a Mountain")를 통해 추적해보려 한다. 또한, 이 두 작품에서 암시된 살아 있는 자연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적 관점을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대신, 그것이 발하는 자연의 언어에 섬세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의

* 2006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야생의 실천』(*The Practice of the Wild*)을 통해 인간중심 언어체계를 벗어나는 야생적 언어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뉴질랜드 마오리 작가인 위티 이히마에라(Witi Ihimaera)의 『고래 타는 사람』(*The Whale Rider*)을 통해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을 타진해 볼 것이다.

I. 생태비평과 동물권리 담론

문학에 표현된 자연의 주제 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문학 그 자체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해야겠지만, 생태비평이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개화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 ‘문학과환경학회’의 설립(1992년)과 『생태비평 선집: 문학생태학의 이정표』(*The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의 발간(1996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전원문학과 낭만주의문학 등 전통적인 자연문학의 경우, 자연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인간 행위의 배경 이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라는 문제제기는 생태비평의 출발점이 된다. 인간중심주의야말로 자연을 인간의 의지 실현과 욕망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파악함으로써 환경위기를 초래하는 근원이 된다는 “반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은 일찍이 『생태비평 선집』에 의해 기념비적으로 명료하게 제시된 이후, 생태비평을 지탱하는 핵심 개념이 되어 왔다.¹⁾ 실제로, 생태비평은 지금까지 자연기 문학(nature writing)에서 최

1) 『생태비평 선집』 이후 발간된 생태비평 연구서와 논문집에서도 반인간중심주의가 담론 진개의 중심축이 되는 경향은 여전하다. 예컨대, 『대지 읽기: 문학과 환경 연구의 새로운 방향』(*Reading the Earth: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Literature and Environment*, 1998)은 전체적으로 문학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지적하며 인간중심 세계관에서 모든 생명과 무생물체를 포함하는 생태적 세계관으로, 즉 자아-비평(ego-criticism)에서 생태-비평(ecocriticism)으로 변화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비평 선집』의 논지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지 읽기』 이듬해에 출간된 『야생동물과 가축: 동물 재현, 생태비평, 그리고 미서부문학』(*The Wild and the Domestic: Animal Representation, Ecocriticism, and Western American Literature*)의 경우도 야생동물에서 가축성, 가축에서 야생성을 읽어내며 야생동물과 가축을 인

근의 에코페미니즘, 원주민 문학과 탈식민주의 그리고 환경적 정의(environmental justic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생태비평을 이전의 소박·편협한 자연중심 문학비평이나 마르크시즘비평, 페미니즘비평 등 여타 비평분야와 차별화시키는 핵심 개념으로서의 “반인간중심주의”의 유효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자연을 인간의 의지 실현과 욕망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파악하는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이 비판됨에 따라,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살아가고 개화할 동등한 권리”(Sessions 28)가 있다는 이른바 ‘자연의 권리’ 담론이 논의되기 시작하는데, 로드릭 내쉬가 『자연의 권리』(*The Rights of Nature*)에서 개진하는 이른바 “윤리신장주의”(ethical extensionism)는 이러한 경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지금까지 백인 남성으로부터 여성, 유색인으로 권리가 신장되어 왔다면, 이제 비인간 생명체에게도 ‘천부의 권리’가 부여되는 방향으로 윤리가 신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쉬 주장의 요체이다(3-12).

내쉬로 대표되는 ‘자연의 권리’ 이론이 동물이라는 비인간생명체에 집중적으로 적용된 결과가 동물권리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모든 동물은 동등하기 때문에, 인종차별(racism)과 성차별(sexism)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처럼, 비인간이라는 이유로 동물을 차별하는 종차별(speciesism)²⁾ 또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동물권리 담론의 핵심 명제인 동시에, 이 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물권리 운동의

위적으로 구분하는 편협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생태비평의 새로운 논문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자연의 기호 아래에서 읽기』(*Reading Under the Signs of Nature*, 2000)라는 논문집도 생태비평을 미국 주류 작가에서 변두리 작가 특히 인종적·문화적 타자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는 있으나, “자연기 문학”, “황야”, “심층생태학” 등 『생태비평 선집』의 주요어들이 여전히 이 연구서 전체를 관류하는 핵심어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고는 해도 기본적인 비평원리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비인간동물에 대한 차별을 종차별이라는 용어로 언명한 학자는 피터 싱어(Peter Singer)이고, 이것을 인종차별, 성차별의 연장선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학자는 리차드 라이더(Richard Ryder)이다.

기본 취지에 해당된다. 세부 내용에 있어 관점의 차이와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은 더 이상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서는 취급되어선 안 되며, 인간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물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동물권리 담론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 위에 전개되는 동물권리 운동은 동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파악하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없이 단지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할 것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동물복지운동과는 구별된다.

동물이 단지 인간의 편의를 위한 자원이 아니라 그 자체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할 권리가 주어져야한다고 주장됨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부여받을 동물의 "도덕적 지위"(김진석 123)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의 하나로 부상하게 된다. 마크 번스틴(Mark Bernstein), 버너드 로린(Bernard Rollin) 등의 동물해방 관련 학자들은 고통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감각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동물은 동물해방운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역으로 이처럼 기본 감각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권리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셈이다. 이와 아울러, 백인 남성으로부터 여성, 유색인으로 확장된 권리의 '주체'에서 발견되는 감정과 사유의 복합적인 의식 체계가 새로운 권리의 '주체'인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로 발견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이러한 특질이 과연 동물권리의 필수요건인지 등에 관련된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에는 비인간 세계에 부여되는 '자연의 권리'와 인간 사회에 적용되는 '인간의 권리' 사이의 혼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에게 적용되는 권리의 개념을 비인간 세계에 그대로 투사할 때 본질적 간극과 괴리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생태비평가 그렌 러브(Glen Love)는 자연을 인간행위의 배경으로만 묘사하는 많은 문학 텍스트에서도 확인되듯이, 복잡한 인간사회에 비해 자연을 단순·소박하게 여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인간중심적 관점의 소산일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Revaluating Nature” 230-31), 이러한 지적은 자연 자체 대신 인간적 관점이 투사된 채 자연을 바라보는 것의 위험성과 한계를 단적으로 제시하는 셈이다. 자연 자체에 대한 세밀한 이해 대신 인간적 관점이 일방적으로 투사될 때, 자연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간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함”(231) 메커니즘이 포착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생태비평의 과업은 자연을 통해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에 밀착해 귀 기울임으로써 그것 스스로 표현하는 바를 포착하는”(Tredinnick 32)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언어에 의해 구획되기 이전의 자연 자체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연 이해에 다가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관점을 비인간 세계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서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면, 인간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리의 개념을 비인간 동물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역시 근원적 문제점을 야기시킬 소지가 크다. 인간적 권리의 개념을 동물에 직접 적용했을 때 가장 먼저 봉착하게 되는 딜레마는 잠재적 수명 이전에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생명보유권이야말로 동물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해당하면서도, 인간 생존을 위한 식량 등의 이유로 동물의 생명보유권이 박탈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잠재적 수명 이전에 인위적으로 동물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냥의 행위에 관련된 논의가 생태비평의 주요 논제 중의 하나가 되어 왔다는 것은 흥미롭다.³⁾ 예컨대, 조셉 크러치(Joseph Wood Krutch) 같은 사냥 반대주의자는 죽음이야말로 “자연에서 벌어지는 가장 최악의 사건”(Anderson 142)이므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에게서 임의적으로 생명을 빼앗

3) 미국 문화과학환경학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마련된 ‘주제별 참고문헌목록’에 동물 관련 섹션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동물 담론이 생태비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적으로 예시하는 실례가 된다. 더욱이, 동물 관련 섹션 내의 세부 항목으로 ‘동물 이미지’, ‘동물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함께 ‘사냥’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동물권리, 특히 동물 생명보유권 관련 담론이 유의미한 생태비평 주제 중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는 사냥 행위는 자연이 부여한 동물의 권리를 박탈 또는 축소하는 비인도적 행위로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또는 전쟁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공박한다. 그러나 더 많은 문학텍스트에서는 사냥이 단지 사냥하는 개체가 사냥당하는 개체의 생명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비자연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모든 생명체를 본질적으로 연결해주는 “불멸의 야생 영혼”(Faulkner 146)을 조우하기 위한 친자연적인 행위로 묘사된다.

사냥은 인간적 권리, 즉 생명보유권의 관점에서 보자면, 동물 개체에 부여된 ‘천부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행위일 수 있지만, 자연 생태계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먹이 사슬을 가동시킴으로써 생태계의 순환원리를 작동시키는 ‘자연적인’ 행위로 이해될 소지도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 식량과 의복을 위해, 즉 생존을 위해 사냥을 행하면서도 사냥감 동물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는 원주민 사회 또는 원시시대의 사냥문화에 대해 생태비평이 깊은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 사회에서 행해지는 사냥 의식(ritual)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에 불멸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의 반영으로, 주술과 제의를 통해 사냥하는 주체와 사냥당하는 객체가 일방적인 관계에 묶여 있다기보다는 불멸의 영혼에 의해 서로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냥을 통한 동물생명의 박탈 행위에는 동물의 생명보유권을 빼앗는 비인도적 행위로 이해될 측면과 함께, 자연원리에 부합하는 자연적인 행위로 이해될 수 있을 또 다른 측면이 동시에 함축되어 있다. 동물의 생명박탈에 관련된 이러한 양면성이야말로 인간중심주의에 관련된 핵심적 논제, 즉 인간의 의식 체계를 인간 영역에 국한시키는 것의 반대가 반인간중심주의를 구현하는 구체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 의식 체계를 비인간 세계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인간중심주의적 처사인지에 관한 의문제기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면, 이러한 의문제기는 동물권리, 더 나아가 생태비평의 핵심 담론에 닿아 있다고 하겠다. 대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생명 박탈 행위에 내포된 원시적 자연성과 함께, 동물개체의

생명 박탈이 인간 내면에 유발하는 죄의식이라는 상반된 양면성을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보다 더 예리하게 극화하고 있는 텍스트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II. 『노인과 바다』: 비극적 모험과 자연의 원리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노인 산티아고(Santiago)는 여러 면에서 그 자신이 바로 바다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 바다의 자연 생태계에 친숙하다. 우선, 평생을 바다에서 보내온 그의 역정이 말해주듯이, 그는 바다의 조류, 물고기, 태양 등의 변화와 흐름에 의해 다가올 날씨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나침반도 없는 무동력선에 의지해 여러 날 망망대해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그 자신이 이미 바다의 일부가 된 듯이, 그것의 변화와 흐름에 친숙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눈은 “바다와 동일한 색”(Hemingway 34)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을뿐더러, “여러 번 누빈”(44) 그의 상의는 마찬가지로 “여러 번 누빈”(33) 배의 돛을 환기시키도록 연결되어 있다. 더욱이, 고기잡이하는 데 필요한 기운을 얻기 위해 기꺼이 섭취하는 바다거북의 흰 알이나, 다른 어부들은 진저리치지만 시력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마시는 상어 간의 기름 등은 문자 그대로 어부 산티아고의 신체를 이루는 구성요소가 되어 있을 것이다. 고기잡이가 예상보다 길어져 먹을 것이 없을 때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고 다시 기운을 차리는 대목 역시 자연 속에서 그 일부로 살아가는 산티아고의 면모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자신과 자연 속의 생물들을 동일시하는 심리묘사를 통해서도 산티아고의 자연적 면모는 확인된다. 산티아고는 죽은 뒤에도 계속 펄떡이는 거북의 심장이 자신의 심장을 닮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먹이를 잡지 못한 채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새들의 처지를 바다위에 일엽편주로 떠있는 자신의 입장과 동일시하며 동병상련의 감정을 품기도 한다. 산티아고가

가장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대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미끼에 걸린 이후 며칠간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커다란 청새치이다. 산티아고는 청새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낚시줄을 한 순간도 놓지 않지만, 이 줄은 단지 청새치의 포획만이 아니라, 양자간의 견고한 유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이렇듯 강한 유대감으로 산티아고는 청새치를 “친구” 또는 “형제”(105)로 부르며, 상어의 공격으로 청새치의 살점이 뜯겨 나갈 때 마치 자신의 몸이 찢겨 나가는 것처럼 느낀다.

이처럼 “친구”이자 “형제”로 부르면서도 산티아고는 청새치가 끌고 가는 끝 어디까지라도 따라가서 그것을 잡고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인다. 그는 “평생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105) 거대하고 멋진 청새치와 깊은 유대를 느끼지만, 며칠씩 계속되는 사투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지를 보여 주겠다”(95)고 되뇌는다. 더욱이, 천신만고 끝에 포획한 청새치가 상어의 공격으로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을 때에도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134)고 외친다. 이 작품에는 이미 자연의 일부가 되어버릴 정도로 자연과 하나가 된 산티아고의 원시주의적 면모와 함께, “너무 멀리”(151)까지라도 나아가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강인한 개인주의적 측면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너무 멀리”까지 가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하기 때문에 비극은 피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러브가 지적하고 있듯이, 산티아고는 친자연적인 원시주의와 비극적 개인주의가 충돌하는 접점이라고 할 수 있다(*Practical Eco-criticism* 127). 청새치와의 결투 내내, 이 거대한 물고기를 꼭 잡아야 한다는 다짐과 이렇게 멋진 생명체를 죽여야 하는 죄의식이 동시에 출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커다란 청새치가 자신의 미끼에 잡히자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산티아고는 그 고기가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를 알아차린다. 이렇게 큰 고기가 어시장에 팔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식량이 되겠지만, 진정 이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는, 이 고기만큼의 품격을 지닌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의문을 품으며, 산티아고는 이 청새치에게서 자신의 진정한 “친구”와 “형제”를 발견한다. 모터보트 등 근대식 낚시장비로 무장하고 있는 젊은 어부들이 바라보는 경쟁자나 적군으로서의 남성적 바다와는 달리, 산티아고가 바라보는 바다의 경우 그곳에 서식하는 생명체에게 호의를 베푸는 모성적 여성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티아고나 청새치 모두 모성적 바다의 품안에 있는 “형제” 또는 “친구”라고 할 만하다. 산티아고는 이처럼 “형제”이자 “친구”인 청새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지만,”(82) 이러한 사랑과 존경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야만 한다”(87)는 결의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하곤 한다.

이렇듯 청새치를 “형제”이자 “친구”로 여기면서도 이것의 생명을 박탈해야 하는 딜레마는 “그 고기를 죽이는 것”에 대한 죄의식으로 이어진다. 산티아고는 고기를 잡는 것은 어부로서의 자신의 운명이고, 별이나 달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다행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되뇌이며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시도를 한다. 그러나 곧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죄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고 그런 일은 그런 생각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한테나 맡기자고 함으로써 딜레마를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는 심리상태를 은연중에 드러낸다(135-36). 결국, 산티아고는 바다에서 작동하는 자연의 생명원리 내에서 그 일부로 살아가면서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죄의식의 유발로 이어지는 인간적 윤리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인간적 관점이 자연 전체의 생명원리 내에서 조화롭게 융화되는 경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산티아고가 인간적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바다 생명체를 적과 친구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산티아고는 바다 새나 거북, 돌고래 등을 자신의 친구로 여기면서도 독을 품고 있는 고깔 해파리, 청새치를 공격하는 상어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거대한 바다에 적과 친구가 공존하고”(151)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적과 친구의 구분은 자연 생태계 내의 객관적 역할이라기 보다는 산티아고의 인간중심적 관점이 투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산티아고가 공감하는 대상은 친구, 그에게 해를 끼치는 대상은 적으로 임의적으로 구획되는 것일 뿐, 바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생명 원리에 입각한 객관적 분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가 바다를 자신의 제한적 관점을 투사해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노인과 바다』에 형상화된 바다마저 제한적 관점의 소산인 것은 아니다. 즉 산티아고의 관점과 텍스트 전체의 관점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사진을 찍듯이 정밀하게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체들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장면들은 바다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메커니즘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날치가 뒤쫓는 돌고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새 역시 날치를 쫓기는 하지만 날치가 자신의 먹이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는 돌고래와 새의 날치 추적 장면(61)은 자연에서 작동하는 먹이사슬의 단면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러브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작품은 한편으로는 친자연적인 원시주의와 비극적 개인주의의 갈등과 마찰을 담고 있는 것일 수 있고, 또 산티아고가 “너무 멀리”까지 간 것이 자연이 정한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극’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너무 멀리”까지 나아가 사랑하자는 청새치와 싸우는 것 자체도 자연 생태계 질서의 일부분으로 이해될 소지도 적지 않다. 특히, 짧은 어부들처럼 모터보트 등으로 무장되어 있지도 않고, 심지어 나침반도 없이, “여러 번 누빈” 돛만 단 채,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이는 대로 청새치를 쫓아 나서는 산티아고의 추적은, 그가 목격하는 돌고래와 새의 날치 추적처럼, 자연 생태계 전체의 일부로 이해될 소지가 크다. 즉, 돌고래와 새의 날치 추적 장면이 바다 생태계에서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한 장의 그림으로 예리하게 제시하고 있다면, 바람과 물결에 따라 청새치를 쫓아가는 산티아고 역시 이 그림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친구”이자 “형제”로 사랑하

면서도, “멀리까지”라도 나아가 기필코 물고기를 낚으려는 행위가 일견 파악되듯 화합할 수 없는 두 지향의 충돌이라기보다 실제로 자연 생태계 전체에서 작동되는 생명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물론, 더할 나위 없는 분투에도 불구하고 앙상한 청새치의 뼈만 신고 돌아오는 산티아고의 귀환은 ‘비극적 모험’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멀리”까지 나아가려는 산티아고의 모험은 혹시 개인적으로는 ‘비극’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자연 전체로서는, 조셉 미커(Joseph Meeker)의 표현대로, 생태계 원리가 지속적으로 작동되는 “생존의 희극”⁴⁾ 중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극은, 작품의 마지막 장면, 창밖의 산티아고 배를 응시하는 관광객의 “낯선” 시선에서 확인되듯이(Florczyk 159),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로 이루어진 산티아고의 모험에 함축된 의미심장함이 이제 상실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III. 「산처럼 생각하기」: 인간중심주의와 대지의 관점

바다의 생명체들을 친구와 적으로 구분하는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가 인간중심적 관점에 입각해 자연 생태계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예화를 보여준다면, 「산처럼 생각하기」에서 고백하는 젊은 시절의 엘도 리오폴드 역시 “늑대가 적은 것은 더 많은 사슴을 의미하고, 늑대가 없는 것은 사냥꾼의 천국을 의미한다”는 인간중심적 관점에 충실해, “늑대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Leopold 130) 당시 대다수 사냥꾼들 중의

4) 미커는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문학에 적용시켜 ‘문학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비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서 「생존의 희극: 문학생태학 연구」(*The Comedy of Survival: Studies in Literary Ecology*, 1972)에서 문학생태학은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주제와 관계에 대한 연구”로 정의된다(29).

하나였다. 여느 사냥꾼처럼 사슴을 친구, 늑대를 적으로 간주하여,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를 보게 되면 서슴없이 방아쇠를 당기던 리오폴드는 어느 날 총에 맞고 죽어가는 늑대의 눈에서 “꺼져가는 푸른 불꽃”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이 “푸른 불꽃”을 마주치는 순간, 죽어가는 늑대의 눈에, 지금까지 자신은 알지 못했던, 그러나 늑대와 산은 알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담겨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130-31).

그러면 당사자인 늑대, 그리고 늑대와 사슴이 다른 생명체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명의 공간인 산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리오폴드가 주목하는 것은, 사슴을 친구, 늑대를 적으로 구분하는 인간중심적 관점에 입각해 친구-사슴을 위해 산에서 적-늑대를 일방적으로 소탕할 경우 야기되는 일련의 생태계 메커니즘이다. 늑대의 감소에 따라 증가하게 된 사슴의 수만큼 사슴의 먹이인 나무 잎과 풀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결국 산 전체의 생태학적 균형이 파괴되어, 급기야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먹이가 고갈된 사슴마저 앙상한 해골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듯 천적의 감소에 따른 사슴의 급격한 증가로 사슴 높이까지의 모든 목초가 고갈되고, 산등성이가 온통 사슴들이 만들어놓은 미로로 뒤 덮이게 될 때, 인간중심적 관점의 파괴적인 위험성과 “산처럼 생각하기”의 의미심장함이 더욱 생생하게 부각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슴 떼가 늑대를 두려워하듯이 산도 산에 사는 사슴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늑대에 의해 사라지게 된 사슴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데 몇 년이 걸리는 반면, 너무 많은 사슴으로 파괴된 산이 복원되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132) 점을 자각하는 것은 “산처럼 생각하기”의 경지에 가까이 다가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에서 울려 퍼지는 늑대의 울부짖음이 사냥꾼에게는 사냥하고자 하는 도전을 불러일으키지만, 사슴에게는 죽음의 공포, 코요테에게는 죽은 고기가 자신의 먹이가 될 것에 대한 기대 등 개체마다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듯 각 개체는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듣고 있는 것이며, 오직 산만이 늑대의 울부짖음을 객관적으로 듣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산처럼 생각하는 경지란 늑대의 울부짖음을 객관적,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적 관점의 주파수에 고정되는 대신, 다양한 주파수로 발화되는 자연의 언어에 열린 가슴으로 섬세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한다. 이처럼 리오폴드 자신이 살아 숨쉬는 대지의 “강렬한 의식”(an intense consciousness, 223)에서 발원하는 자연의 언어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인간 중심 언어체계의 그물을 벗어나는 야생의 언어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사색은 게리 스나이더의 『야생의 실천』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

IV. 『야생의 실천』 : 잠재된 야생의 가능성과 황갈색 언어의 세계

앨도 리오폴드가 위스콘신 주 등 미국 야생 삼림지대의 감독관으로 봉직하며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야생의 자연을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에서 얻은 성찰을 통해 오늘날 환경운동과 사상의 핵심적 거점 중의 하나가 되어왔다면, 스나이더의 경우 북미뿐 아니라 일본 등의 동양세계에 오래 거주하며 온갖 산과 숲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중국에는 시에라리바다 산맥의 깊은 숲속으로 돌아와 자연과 가장 가까운 삶을 영위하며 자신의 철학을 몸소 행동으로 구현하는 모범적 실천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후 이듬해 발간된 리오폴드의 『샌드 카운티 연감』(*The Sand County Almanac*)이 환경사상과 문학생태학의 귀중한 전범이 되고 있듯이, 스나이더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탁월한 비전을 담고 있는 그의 빼어난 시와 산문은 문학생태학의 지경이 확대·심화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스나이더의 풀리처 수상 시집 제목이기도한 ‘거북섬’(Turtle Island)이라는 이미지는 스나이더가 도달한,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의 모

습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북미 대륙은 더 이상 '미합중국'이나 '캐나다'라는 공식적이면서도 임의적인 이름으로 구획될 수 없으며, 수천 년 전부터 그곳에 살아 온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터득하고 있듯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와 모든 비생명체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살아 숨쉬는 커다란 생명의 장소 즉 일종의 거북의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거북섬의 비유가 강력하게 환기시키듯 자연이 그것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그물처럼 견고하게 맞물리며 생명원리가 살아 꿈틀거리는 거대한 야성의 공간이라면, 이러한 생명과정의 일환으로 태어난 인간 역시 본질적으로 야성적(wild)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스나이더의 진단이다. 더욱이, 인간은 이 거대한 자연의 생명질서가 작동하는 전체 그물망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때, 자연을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한 자원으로 전락시키는 편협한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생명공동체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본성인 야성을 회복하고 실천할 당위성이 대두된다.

이렇듯 개별적 자아의 틀에 함몰되지 않고 자연의 생명원리가 온전히 구현되는 야성의 상태로 고양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대인의 대표적인 거주 형태인 도시 생활에 내재된 근원적인 한계가 부각되기에 이른다. 스나이더가 바라보는 대부분의 도시는 타 생명체에 너무 배타적이고 적대적이어서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린"(Snyder 12) 영역이다. 반면, 야생지(wilderness)는 다양한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나름의 생명질서를 이루며 한껏 번성함으로써 잠재된 야성의 가능성이 최대로 실현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야생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가는 것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냉엄한 현실이다. 그러나 스나이더에 따르면, 야생지는 축소될 수 있을지언정 야성 자체는 사라질 수 없는 것이 된다. 생명체가 거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내부에 생명체를 지탱시키는 생명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고 또 그 원리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에 이미 야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14-15). 이런 면에서, 야성은 문명화된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듯이 미개하고

무질서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전체 그물망이 작동하는 야성 상태의 자연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부분은 지극히 작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만으로는 자연의 전체 질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스나이더의 분석이다. 그리하여 스나이더는 학교에서만 아니라 산과 들에서 야성의 언어를 배울 것을 제안한다. 언어의 진정한 힘은 야성의 편에 있기 때문에, 갖가지 자연 현상에 녹아 들어가는 생생한 언어체계를 체험으로 습득하는 것이 인간에 내재된 야성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언어를 혼돈의 우주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이해하는 언어중심주의(logocentrism)는 장구한 세월 면면히 이어 내려온 서구 형이상학 전통 중의 하나이지만, 스나이더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만”(77)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자신을 앞세워 삼라만상을 경험한다는 것이 허울 좋은 망상이듯이, 복잡다기한 생명체계를 단일한 언어로 정리한다는 것은 폭력적인 허구 만들기일망정 결코 살아 있는 질서의 탐색과정은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일 질서와 우주를 창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소우주를 이루는 여러 겹의 언어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해지게 된다. 스나이더는 자신의 생태학적 비전의 스승인 헨리 데이빗 쏘로우(Henry David Thoreau)로부터 “황갈색 문법”(48)이라는 개념을 차용하며, 수많은 겹겹의 소우주들 자체의 상징구조로 구성되는 지극히 다양한 황갈색 언어 세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야생적 언어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작업이야말로 야성을 회복하려는 내적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이라는 것이 스나이더 주장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언어를 어떠한 누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구조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언어중심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할 때에만 유효할 것이다. 야생적 자연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기 위해 요청되는 것은 인간 언어의 관점에서는 ‘침묵’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자연의 언어체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자연의 언어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많이 쇠약해지긴 했지만 분명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인간내면의 야성을 복원하여 인간중심적 관점의 일방적 투사 대신 자연의 “황갈색 문법” 그 자체에 세밀히 귀 기울이려는 노력에서 시작될 것이다.

스나이더의 지적처럼 문명화와 도시화의 진척으로 야생지가 아무리 축소된다 하더라도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그것을 지탱하는 생명지속체로서의 야성 자체는 사라질 수 없는 것이 된다. 이렇듯 물리적 야생지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야성 자체는 생명과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때, 눈앞의 야생지를 그림처럼 텍스트에 옮겨 놓으려는 안이한 시도 대신, 현상의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야성의 가능성을 끈질기게 찾아나서는 역동적인 움직임, 즉 인간중심의 언어체계에 일방적으로 묶여 있는 대신, 황갈색 언어의 세계로 진입해 야생의 숨결을 포착하려는 지난한 실천적 궤적이야말로 『야성의 실천』에서 이루어진 가장 의미심장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서구 형이상학 전통의 소산인 언어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려는 이러한 시도가 여느 서구인보다 비서구 세계를 밀접히 경험했던 스나이더의 텍스트를 통해 강하게 제시되는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스나이더 텍스트에 인간중심 언어체계를 벗어나 자연의 언어에 도달하려는 지난한 시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텍스트에서 언어중심주의의 구획에서 벗어나 자연의 언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시사하는 경지까지 제시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스나이더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인간중심 언어체계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작가 특유의 비서구 경험과 관련이 깊다면, 그의 텍스트가 자연 언어의 구체적인 양상을 포착하는 지평에 미치지 못한 것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서구적 사유의 전통을 온전히 떨쳐버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고유의 경험을 담고 있는 위티 이히마에라의 『고래 타는 사람』은 인간중심을 벗어나 자연의 언어를 만날 가능성이 서구적 사유의 틀을

벗어나는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구체적인 실례가 될 수 있다.

V. 『고래 타는 사람』 : 비인간 세계와의 대화

이히마에라는 영어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제 1세대 마오리 작가이다. 영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구식 대학교육을 받은 바 있는 이히마에라를 서구문학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운 작가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작품세계가 19세기 이후 뉴질랜드에 이주해온 유럽개척민 중심의 서구문화가 아니라 이전부터 오래도록 이곳에서 살아왔으나 유럽인 이주 이후 자신의 땅에 대한 주도권을 박탈당해 온 마오리 사회와 문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적 전통에 의해 구획될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이 그의 문학을 특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웨일 라이더>라는 영화로 각색되어⁵⁾ 대중들에게 큰 주목을 받기도

5) 선댄스, 로테르담, 샌프란시스코 등의 영화제 수상이 말해주듯 국제적으로 폭넓은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영화 <웨일 라이더>는 이히마에라의 동명 소설을 원전으로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실제로, 큰 플롯과 주제에 있어서는 영화 각색본과 원작 소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플롯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난다. 우선, 주인공의 이름이 먼 옛날 부족을 이끌고 뉴질랜드 섬으로 건너온 마오리 지도자의 이름과 동일한 것에는 원작과 영화가 일치하지만, 원작에서는 주인공의 이름이 옛 지도자의 이름인 카후티아 테 랑기로부터 축약된 카후(Kahu)로 명명되고 있는 반면, 영화에서는 카후티아 테 랑기의 별칭인 파이키아(Paikia)에서 축약한 파이(Pai)가 주인공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작이 주인공의 삼촌인 라위리(Rawiri)의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는 반면, 영화는 주인공 파이의 시점을 중심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차이점도 발견된다. 또한, 원작에서는 카후를 낳다가 카후 어머니가 죽은 몇 년 후 포루랑기(Porourangi)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만 또 딸을 낳아 할아버지인 코로 아피라나가 다시 한번 실망하고 마을의 남자들이들 중에서 차세대 족장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영화에서는 카후의 어머니가 아들과 딸 이란성 쌍생아를 낳다가 아들과 함께 본인도 죽고 이후 남편 포루랑기가 독일로 떠나는 것으로 개구성함으로써 극적 효과의 배가를 겨냥하고 있다. 게다가, 원작에서는 주인공의 삼촌 라위리가 호주, 파푸아뉴기니로 떠나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반면, 영화에서 고향을 떠나는 것은 주인공의 아버지 포루랑기이다. 포루랑기는 아내의 죽음 이후 독일로 떠나 작품 활동을 하다가 결국 서양인 약혼녀와 함께

했던 『고래 타는 사람』은 작가 이히마에라의 실제 고향이기도 한 왕가라 마을을 배경으로, 특히 마오리족의 뉴질랜드 정착 신화와 관련시키며, 마오리 사회와 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왕가라 마을을 중심으로 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마오리족 테 타이 라 휘티(Te Tai Rawhiti) 부족의 족장인 코로 아피라나(Koro Apirana)는 자신들의 선조인 위대한 지도자 카후티아 테 랑기(Kahutia Te Rangi)가 동쪽 하와이키라는 섬으로부터 고래의 등을 타고 아침 해가 그려놓은 길을 따라 바다를 건너 뉴질랜드에 정착함으로써 자신들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젊은 세대에 여러 차례 강조한다. 실제로, 이 마을의 마을회관 꼭대기에는 고래 등에 올라탄 카후티아 테 랑기가 조각되어 있다. 카후티아 테 랑기 신화에 따르면, 이처럼 고래를 타고 바다를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지도자가 다른 무엇보다도 “바다 동물들과 대화하는 능력”(Ihimaera 36)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그는 신대륙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대화하는 방법을 터득케 함으로써 모든 생명체가 서로 도우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트이도록 만들었던 것이다(30-31).

“지나치게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천벌을 받게 마련”(49)이라고 믿으며 결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던 마오리 부족의 풍습이야말로 바다 생명체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 백인 문명이 뉴질랜드에 이식됨에 따라, “상업적으로 조업하는 대형 어선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50) 것은 바다 생명체에 대한 위협 즉 바다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고래에게 말하는 법”(40)을 체득하여 고래에게 새로운 땅을 안내받았던 축복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한 때 인간의 친구이던 동물에 등을 돌리고 고래사냥이 시작되는 시대가 도래하게”(41)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향으로 돌아와 중단했던 카누 만들기를 재개해 새로운 카누를 완성하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지도자 파이의 지휘 하에 이 카누를 힘차게 노 저어 가는 것으로 플롯이 마무리되고 있다.

한 때 인간과 대화를 하며 도움을 주고받았던 고래들은 이제 고도의 살육무기로 무장한 인간들을 피해 깊은 해저협곡으로 피신하게 된다. 그러나 제 9장이 묘사하고 있듯이, 핵실험으로 발생한 강력한 방사능이 이 깊은 곳까지 흔들며 “생명의 장소”였던 곳을 “죽음의 장소”(59)로 변모시키자, 고래들은 장구한 세월 이용하던 자신들의 길을 벗어나 조용한 바다를 찾아 남극까지라도 향하게 된다. 그러나 얼음 덮인 바다 밑에서 남쪽으로 헤엄쳐 가던 고래들은 결국 거대한 빙벽에 막혀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된다. 앞길이 막히게 된 우두머리 고래는 예전에 자신들의 등에 탔던 그 사람이라면 길을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아쉬워하며 고래의 무리들을 데리고 ‘그 때 그 곳’을 향한 마지막 여행을 감행하게 된다.

마오리 부족 해변에 고래들이 몰려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수백 마리의 고래들이 인근 와이누이 해변에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고래들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늦게 얻은 단서인 셈이다. 고래와의 대화가 실제로 가능하게 된 것은 수십 마리의 고래가 왕가라 마을 해변으로 올라왔을 때이다. 해변으로 올라와 누워있는 고래들을 트랙터를 동원해 바다 쪽으로 끌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은, “고래가 살면 우리도 살고, 고래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것이며... 고래와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마오리족이 아닌 것”(117)을 알면서도, 실제로 고래와의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고래가 살면 우리도 산다’는 생각만으로 우두머리 고래에게 달려간 것은 바로 카후였다. 카후가 마오리 노래로 고래를 부르며 자신이 카후티아 테 랑기임을 밝히자, 고래는 “당신이 파이키아입니까?”(127)라고 묻게 되는데, 이 때 카후는 고래의 온몸에서 희망의 전율을 느끼게 된다. 이어 카후는 마오리족의 시조 카후티아 테 랑기 즉 파이키아처럼 고래의 등에 앉아 두발로 고래 옆구리를 차며 바다로 향하게 되고, 나머지 고래들도 이 우두머리 고래를 따라 바다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다시 “생명의 장소”로 옮겨가게 된다. 결국, 고래가 살게 됨으로써 인간들도 죽음의 단계에서

생명의 단계로 이전하게 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고래와 더불어 인간을 죽음 대신 생명의 단계로 옮겨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동인은 부족의 시조인 카후티아 데 랑기나 주인공 소녀 카후처럼 고래라는 비인간 생명체와 ‘대화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느냐의 여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고래와의 대화, 또는 고래끼리의 대화가 영어 대신 마오리 원주민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족장 코로 아피라나의 지적처럼, 마오리 세계에서는 “애초에 하나였던” 것이 “현실과 비현실, 자연과 초자연, 현재와 과거, 과학과 환상”이라는 서구적 이분법의 두 세계로 분화된 것이라면(117), 비인간 생명체와의 대화 재개가 “애초에 하나였던” 분열 이전의 세계관 즉 비서구적 언어체계를 통해 시사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을 통해 마오리 원주민 언어와 그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족장 코로 아피라나는 마오리 문화의 복원이 그 언어를 되살리는 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믿고 젊은 세대에게 그것을 전수하는 데 헌신적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공식 교육에서 제외되지만 가장 빨리 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바로 카후라는 점은 이 언어가 고래와의 의사소통에 깊이 관련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고래 타는 사람』에서 암시되는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마오리 원주민 언어와 문화 체계가 인간과 자연과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인간적 관점의 간섭 없이 최대로 자연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서구의 언어·사유 체계만큼이나 비인간 세계에 일방적으로 투사되는 인위적 성격이 다분해, 이전과는 다른 ‘낯선’ 방법을 차용할 뿐, 또 다른 체스추어 이상으로 평가될 수 없을 것인지의 여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질 마오리 문화의 전개과정을 통해 계속 점검해볼만한 과제라고 하겠다.

인 용 문 헌

- 김진석. “동물해방과 환경보호는 동지인가 아니면 적인가?” 『문학과환경』 5.1 (2006), pp. 115-44.
- Anderson, Lorraine and Scott Slovic, et al. eds. *Literature and the Environment: A Reader on Nature and Culture*. New York: Longman, 1999.
- Bernstein, Mark. H. *On Moral Considerability: An Essay on Who Morally Matters*. New York: Oxford UP, 1998.
- Collins, Fort, et al. eds. *Reading the Earth: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Literature and Environment*. Moscow: U of Idaho P, 1999.
- Faulkner, William. *Go Down, Moses*. Harmondsworth: Penguin, 1942.
- Florczyk, Steven. “Hemingway’s ‘Tragic Adventure’: Angling for Peace in the Natural Landscape of the Fisherman.” *The North Dakota Quarterly* 68.2-3 (2001), pp. 156-65.
- Glotfelty, Cheryll and Harold Fromm, eds. *The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Athens: The U of Georgia P, 1996.
- Hemingway, Ernest. *The Old Man and the Sea*. Seoul: Shinasa, 1977.
- Ihimaera, Witi. *The Whale Rider*. New York: Hartcourt, 2003.
- Leopold, Aldo. “Thinking Like a Mountain.” *A Sand County Almanac*. New York: Oxford UP, 1949, pp. 129-33.
- Love, Glen A. “Revaluating Nature: Toward an Ecological Criticism.” *The Ecocriticism Reader: Landmarks in Literary Ecology*. Eds. Cheryll Glotfelty and Harold Fromm. Athens: The U of Georgia P, 1996, pp. 225-40.
- _____. *Practical Ecocriticism: Literature, Biology, and the*

- Environment*. Charlottesville: U of Virginia P, 2003.
- Meeker, Joseph. *The Comedy of Survival: Studies in Literary Ecology*. Los Angeles, Guide of Tutors Press, 1972.
- Nash, Roderick. *The Rights of Nature: A History of Environmental Ethics*. Madison: U of Wisconsin P, 1989.
- Nelson, Barney. *The Wild and the Domestic: Animal Representation, Ecocriticism and Western American Literature*. U of Nevada P, 2000.
- Rollin, Bernard E. *Animal Rights and Human Morality*. Buffalo: Prometheus, 1992.
- Ryder, Richard D. *Victims of Science: The Use of Animals in Research*. London: National Anti-Vivisection Society, 1983.
- Sessions, George, ed. *Deep Ecology for the 21st Century*. Boston: Shambhala, 1995.
- Singer, Peter. *Animal Liberation: A New Ethics for our Treatment of Animals*. New York: Random House, 1975.
- Snyder, Gary. *Turtle Island*. New York: New Directions, 1974.
- _____. *The Practice of the Wild*. New York: North Point Press, 1990.
- Tallmadge, J. and H. Harrington. *Reading under the Sign of Nature: New Essays in Ecocriticism*. Salt Lake City: U of Utah P, 2000.
- Tredinnick, Mark, ed. *A Place on Earth: An Anthology of Nature Writing from Australia and North America*. Sydney: U of New South Wales P, 2003.

【Abstract】

Animal Rights and Language of Wild Nature:
An Ecocritical Approach
Focused on Hemingway's *The Old Man and the Sea*,
Leopold's "Thinking Like a Mountain,"
Snyder's *The Practice of the Wild*, and Ihimaera's *The Whale Rider*

Gyu Han Kang
(Kookmin University)

Anti-anthropocentrism has been a key idea of ecocriticism, which has brought into light such anti-anthropocentric ecocritical discourses as Roderick Nash's 'rights of nature'. The animal rights movement and discourses can be understood as an application of Nash's theory into animals. According to the animal rights discourses, speciesism cannot be accepted in the same way as racism and sexism. The rights of nature which are applied to non-human beings are placed in one dimension and human rights which by definition exclusively cover human beings and their society are in another. The difference leads to significant issue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question of hunting and fishing. The dilemma of killing animals as 'friends' and 'brothers' is vividly portrayed and its resolution is meaningfully attempted in Ernest Hemingway's *The Old Man and the Sea* and Aldo Leopold's "Thinking Like a Mountain." In these two narratives, the possibility of going beyond the restricted anthropocentrism and into wild nature is suggested. Listening carefully to the words of the wild nature is required to step into wild nature. The significance of the language of wild nature can be grasped in Gary Snyder's *The Practice of the Wild*, and its possibility of transcending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 is raised together with concrete examples in Witi Ihimaera's *The Whale Rider*.

주제어 (Key Words)

동물권리(animal rights), 생태비평(ecocriticism), 인간중심주의(homopocentricism), 사냥(hunting), 자연의 언어(language of wild nature)